



군종주보

2019년 6월 23일(제934호) 지극히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상제 상혈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상제 상혈의 신비는 내어줌의 기쁨입니다.”

주보 강론원과 마감 시간을 이미 하루 지난 상황에서 유독 오늘 강론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며칠을 묵상해도 복음에서의 예수님 얼굴과 사람들의 얼굴만 계속 보이더라고요. 굶주림과 계속된 이동으로 힘겹고 짜증스러웠던 사람들의 얼굴이 주님께서 음식을 주시자 웃음과 여유로움, 편안함으로 바뀌어 무리마다 웃음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얼굴만이 계속 남았습니다.

이 두 장면에서 계속 멈춰있던 어느 수요일, 반쯤 포기한 상태로 군종병들과 외식 겸 종교행사 간식을 챙기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각자 먹을 것을 시키고 막 먹으려는 찰나,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주시기에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니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면, 생각지도 않은 맛있는 음식에 모두 엄청 좋아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문이 밀려서 한창 바쁘게 음식을 만드시던 사장님께서 그 모습을 중간중간 보시며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거의 다 먹어갈 때 즈음, 여유가 생긴 사장님께서 슬그머니 오시더니 자신을 비오라고 소개하시는 그 순간, 지금의 현실이 요 며칠 내내 봤던 오늘 복음의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거저 주신 음식에 기뻐하며 먹는 우리와 세상 편안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사장님. 양쪽 모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어주는 것 자체로써 기쁨을 느끼는 사장님의 그 미소는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 예수님의 미소와 같았으며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일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주님의 몸과 피로 배부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매 미사 때마다 받아 모시는 성체의 그 신비로 오늘 복음에 나온 사람들의 행복을 함께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주님을 한번 닮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군가 내어준 빵과 물고기로 사람들에게 내어준 주님처럼, 주님께로부터 성체와 성혈을 받은 우리도 사람들에게 내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식당 주인이 아니어도, 음식에 재주가 없어도, 부유하지 못해도, 내어줄 것은 분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서로에게 빵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가르침처럼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지요. 그 어떤 변화나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잠시 기다려줌, 아무도 시키지 않은 청소, 봉사활동, 익명의 기부, 무거워 보이는 아랫집 할머니의 분리수거 도와주기, 주운 지갑 돌려주기 등등 시간을 내어줄 수도, 물질적인 것을 내어주거나 내 손 한번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거창할 이유는 없지요. 다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꼭 하나를 바라는 것 없이 한번 내어보는 일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체 성혈의 신비는 내어줌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려면 해보는 길 밖에는 없겠지요. 내어줄 때 더 큰 것이 기쁨임을 깊이 체험하며 세상에 주님의 행복을 전해봅시다. 아멘.



김훈겸(요한보스코) 신부
목포해군(3함대)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창세 14,18-20

회답송

◎ 멜키체딕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제 2 독 시

1코린 11,23-2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루카 9,11ㄴ-17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원시장 베드로



성인명: 원시장 베드로 (元-- Peter)
 신분: 양인, 순교자
 활동연도: 1732-1793년

원(元)시장 베드로는 1732년 충청도 홍주 응정리(현,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의 양인(良人)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56~57세가 되었을 때, 사촌 형인 원시보 야고보와 함께 천주교 교리에 대해 듣고 입교하였다. '시장'은 그의 관명(冠名)이다.

본디 원 베드로의 성격은 사납고 야성적이어서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그러나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동안 성격이 변하여 어떠한 일에서나 온화함을 보여 주었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이웃에게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키는 데 열중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이름은 관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나자, 관장은 포졸들을 보내 원 베드로와 원 야고보를 체포해 오도록 하였다. 이때 사촌인 원 야고보는 친구들의 권고에 따라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으나, 원 베드로는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홍주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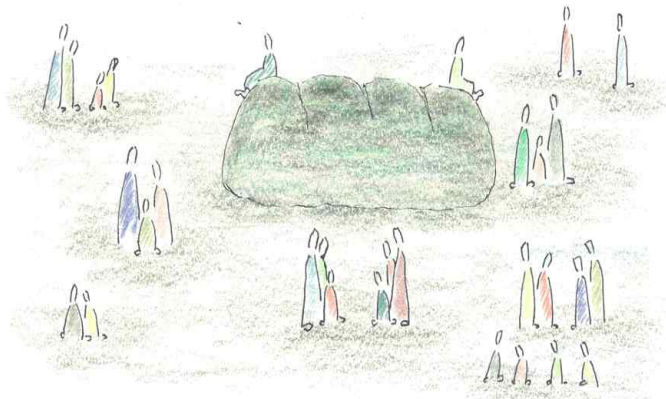
이내 원 베드로는 홍주 관장 앞으로 끌려나가 문초를 받아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하느님과 부모님께 대한 본분과 천주교의 참된 도리를 설명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 달을 옥에 갇혀 있으면서 원 베드로는 자주 끌려나가 배교를 강요당하고 형벌을 받았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포졸과 형리들에게 전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우가 그를 만나러 옥으로 찾아왔고, 이때 원 베드로는 그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홍주 관장은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자 하였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음식을 가져다주도록 하고는 죽을 때까지 매질하도록 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관장은 다른 방법을 생각한 끝에, 그의 몸에 물을 붓고 밖에 내다 놓아 얼어 죽게 하라고 명하였다. 원시장 베드로가 덮어쓴 물은 이내 얼음으로 변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오로지 주님의 수난만을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목숨을 하느님에게 바쳤으니 그때가 1793년 1월 28일(음력 1792년 12월 1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61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식구



우리는
 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먹는
 식구입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죠.

상화이야기

세례자 요한 제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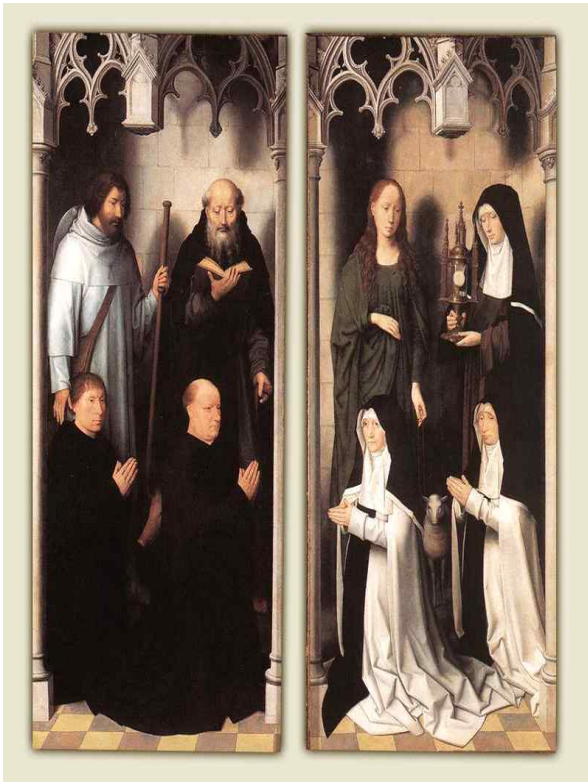


그림을 펼쳤을 때의 모습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며 내일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이다. 그래서 이번 주를 포함하여 향후 몇주간은 세례자 요한에 헌정된 이 작품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본 작품은 사도 요한과 세례자 요한 모두에게 헌정된 병원 성당을 위해 제작된 것이며, 걸면의 제단화를 뚜껑처럼 열면 내부 제단화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닫혀 있고 특별한 날에만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한스 멤링, 1479년경 제작

오크파넬 위 유희, 173.6x173.7cm(중앙제단화), 양원 제단화 각 176x78.9cm / 브뤼헤 상요한병원, 벨기에



걸면 패널 모습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걸면 제단화의 왼쪽에는 중세 시대 병자들의 수호성인인 안토니 수도사 성인과 제임스 성인,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병원의 책임 수도사들이, 오른쪽 패널에는 아그네스 성녀와 클레어 성녀가 무릎을 꿇고 있는 병원 책임 수녀님들과 함께 그려져 있다.

동시대 화가들이 그리자이유, 즉 흑백의 석고상으로 제단화의 걸면에 인물들을 그려낸 것에 반해, 멤링은 성당 구석 한편에 실제 이들이 서서 혹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듯이 그려내었고, 이는 실제 병원 성당 건축물과 흡사하게 그려내어 실제 건축물의 연장선에 있는 느낌이 들었으리라.

이 당시에는 환영을 볼 정도의 깊은 묵상을 독려하였고 미술 작품도 그러한 묵상을 도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 이 당시의 성당 신자들은 실제 병원의 직원이기도 했던 수도사들이 이 그림의 중앙을 바라보고 있는 설정과 함께, 이 제단화의 내부에 펼쳐지는 장면을 바로 이 성당 안에서 직접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했었을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생제 성월 대축일: 동성대 김병봉 신부

◆ 교구장 동정

- 백운(56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23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6월 25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2019년 군중장교 임관식
 때·곳: 6월 28일(금) 11:00, 종합행정 학교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